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150
----------	------

발의연월일 : 2013. 10. 7.

발의자 : 안민석 · 정희수 · 배재정
배기운 · 이만우 · 김제남
한정애 · 오영식 · 전정희
박수현 · 윤관석 · 진성준
박홍근 의원(13인)

주 문

일본 국립도쿄박물관 소장의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은 일제강점 당시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1870~1964)에 의해 약탈된 조선 문화재로 추정된다.

왕실 물품은 궁내부가 관리하던 것으로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것인데, 국립도쿄박물관이 오구라 컬렉션으로부터 기증받았다면 도난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도 올해 들어 호조태환권과 문정왕후 어보의 반환을 결정하는 등 소장 유물이 정상 경로로 입수됐다 해도 도난품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반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의 불법 취득 여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성실한 조사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우호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정부에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에 따라 불법 취득 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대한민국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반환을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하여 일본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일본 국립도쿄박물관이 소장한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은 제왕을 상징하는 문양과 장식을 완벽하게 갖춘 현존하는 유일한 유물로 평가될 정도로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함.

또한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은 일제 강점시기 빼앗긴 우리 민족의 자존심으로, 우리 민족의 대표적 문화재이자 조선의 상징인 투구와 갑옷이 일본에 유출된 경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의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은 일제강점 당

시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1870~1964)에 의해 약탈된 조선 문화재로 추정됨.

왕실 물품은 궁내청이 관리하던 것이고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것인데, 도쿄 국립박물관이 오구라 컬렉션으로부터 기증받았다면 도난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받아들인 것.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이 물건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물건으로 결코 타국에 양도될 수 없는 문화재이며, 개인간의 사사로운 거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

또한 1973년 12월 18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3187(XXVIII)’을 포함한 유엔과 유네스코의 諸결의와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등 문화재의 원산국(또는 출처국) 반환을 확립한 국제조약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조선대원수 황제·투구는 원산국(또는 출처국)인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함.

이에 일제강점의 아픔을 상기하고, 한·일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우호적 관계 유지를 돈독히 하고자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의 불법 취득 여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실한 조사를 촉구하고, 불법으로 드러날 경우 즉각 대한민국으로 반환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